The Western Capital of Ancient Japan

고대 일본의 서쪽의 도읍인 「니시노미야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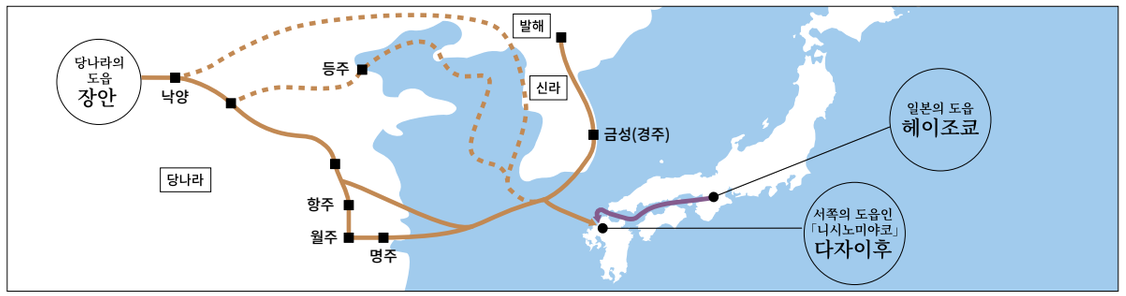
～동아시아와의 교류 거점～

日本遺産
JAPAN HERITAGE

일본 유산이란?

일본 유산은 지역의 역사적 매력이나 특색을 통해 일본 문화와 전통의 이야기를「일본 유산」으로서 문화청이 인정하는 것.

스토리를 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력 넘치는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들을, 지역이 주체가 되어 종합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고,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략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시노미야코(서쪽의 도읍)」 다자이후

일본의 서쪽, 규슈・츠쿠시 지역에는 한때 도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자이후입니다. 1300 년 전, 그곳에는「대군(천황)의 먼 조정」인 다자이후를 놓여져(『만엽집』),「천하지 일도회(天下之一都会천하의 하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속일본기』) 다자이후는 고대와 중세에 걸쳐 당시 일본의 궁도(宮都)와 해외로부터 들어온 선진문화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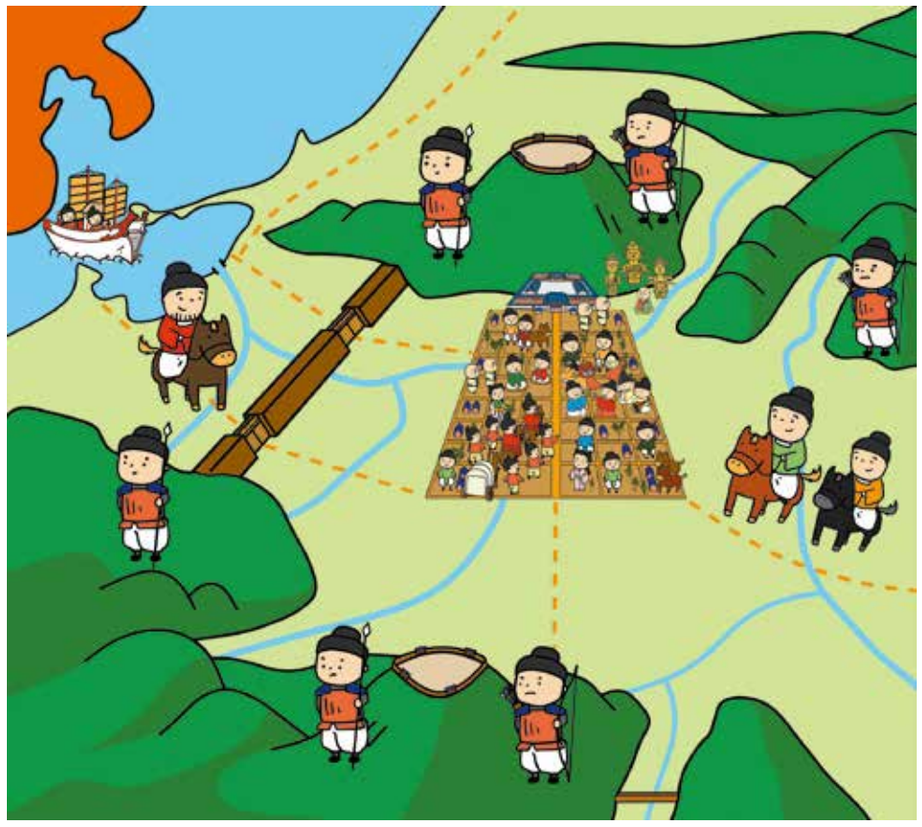
세계와 연결되는 서쪽의 도읍인「니시노미야코」

1300 년 전 중국의 당 왕조 (唐王朝) 가 세계 제국으로 번성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변국들을 당나라의 문물 · 문화 · 정치 제도를 서둘러 받아들였고 , 일본도 703 년에 견당사인 아와타노 마히토 (粟田真人) 가 당나라에서 선진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 그리하여 일본은 역사상 가장 국제적인 시대라고 불린 나라 (奈良) 시대 (710~794 년) 를 맞이하게 됩니다 .

황제로부터 환대받은 아와타노 마히토가 본 당나라의 도읍인 장안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도시였습니다 . 그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헤이조쿄와 다자이후가 만들어졌습니다 . 츠쿠시 (筑紫) 에는 텐지 천황 (天智天皇) 통치 기간에 미즈키 (水城) 와 오노성 (大野城), 기이성 (基肄城) 등 , 이미 백제의 궁도 (宮都) 를 본뜬 요새가 구축되어 있었지만 , 당나라 도성를 실제로 본 아와타노 마히토가 부임하여 직접 축조에 관여함으로써 , 서쪽의 도읍인「니시노미야코」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

그것은 미즈키 (水城) 나 오노성 (大野城), 기이성 (基肄城) 등 옛 요새를 이용하여 그 안에 약 2km 사방에 걸쳐 바둑판 모양의 도시 구획 (다자이후 조방 (条坊)) 을 형성한 본격적인 도성이었습니다 . 다자이후 정청과 관련된 관공서를 도시 지역의 북쪽 중앙에 위치시켜 그 전면에 주작 대로 (朱雀大路) 를 부설했습니다 . 그 폭은 장안성 주작 대가 (朱雀大街) 의 1/4 이며 , 헤이조쿄 주작 대로의 1/2 규격을 갖고 있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 도시에는 거주지와 함께 관료의 자녀들이 다닌 교육기관 (각코인 : 学校院) , 천황과 연고가 있는 사원인 간제온지 (観世音寺) 와 한냐지 (般若寺), 영빈관 (객관) 등 도성과 같은 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 지붕에는 도읍과 같은 디자인의 연꽃 문양 기와지붕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 견당사인 아와타노 마히토가 당나라에서 본 사자상과 같은 얼굴의 도깨비 기와가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 사방으로 뻗어 나간 관도 (官道) 는 문물 • 문화 교류에 기여했습니다 .



외국 사절단을 맞이하는 도시

서쪽의 도읍인「니시노미야코」에서는 외국 사절단을 맞이하고 국가에 의한 외교 ·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 사신 (내빈) 은 먼저 하카타 만에 근접한 영빈관인「츠쿠시무로츠미 (筑紫館) (고우로칸 (鴻臚館) 으로 개칭)」로 들어와 , 여기에서 다자이후로 향했습니다 . 츠쿠시노무로츠미를 떠난 사절단은 직선으로 이어진 관도 (官道) 를 따라 텐지 천황 (天智天皇) 통치 기간에 세워진 미즈키의 서문에 이르렀고 , 좀 더 가서 라조몬 (羅城門 - 도성의 정문) 에서 다자이후의 거리나 풍경을 보며 주작 대로를 따라 북상하여 영빈관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 그리고 외교 의례를 행할 때는 위엄을 갖추고 영빈관에서 주작 대로의 북쪽을 따라 올라가 다자이후 정청으로 향했습니다 . 정청에서는 음악과 함께 의례와 환대의 향연이 열렸습니다 . 체류하는 사절단을 위해 일본 · 당나라 · 신라의 최고급 식기에 담긴 호화로운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 때때로 중국에서 들어온 차도 즐겼습니다 .

츠쿠시(筑紫)에 꽃핀 문화

서쪽의 도읍인「니시노미야코」다자이후에서는 외국에서 온 귀빈들을 대접하기 위해 문화적 소양을 가진 인물이 필요했고, 또한 인적 교류의 거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간진(鑑真), 구카이(空海), 사이초(最澄) 등의 지식인들도 머물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고 쌓아져 갔습니다. 예를 들어, 헤이안 시대 초기 시문 서화에 뛰어난 오노노 다카무라(小野篁:802~853 년)는 다자이 코우로칸(大宰鴻臚館)에서 당나라 사람과 한시를 서로 지어 읊으며 깊은 교류가 하였습니다. 또한, 만엽집에 시가 소개된 다자이후의 장관이었던 오토모노 타비토(大伴旅人:665~731 년)의 관저에서 열린 '매화연(梅花宴)'에서는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된 매화를 감탄하면서 서로 지은 와카(일본의 시조)를 소개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는데, 만엽가인(万葉歌人)들은 오노성과 스이타 온천(후츠카이치 온천)을 시작으로 츠쿠시(筑紫)의 풍경에 마음을 실어 와카(和歌)를 읊었습니다.

그 후, 매화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의 전승과 함께 시대를 넘어 다자이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꽃으로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자이후에서 미치자네(道真)는 주작 대로에 접한 남관에서 불편한 생활을 보냈다고 하며 사후에는 다자이후 텐만구 신사에 모시게 되면서 남관과 텐만구 사이에서 신을 모시는 행렬인 진코 행사(神幸行事)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열리고 있는 진코 행사는 다자이후 조방 등 고대 구획을 따른 길을 이용하여 헤이안 시대의 에마키(絵巻 - 그림 두루마리)에 나오는 것 같은 우아한 의상을 입은 행렬이 일 년에 한 번 추분(秋分)에 열립니다.

선진 문화의 집적(集積)

간제온지(観世音寺) 절은 서쪽의 도읍인「니시노미야코」에서 펼쳐진 교류로 인해, 많은 문화와 문물이 집결된 모습을 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간제온지는 텐지 천황(天智天皇)이 발원하여 당나라에서 현종(玄宗) 황제로부터 가사(袈裟 - 승려가 입는 법의)를 직접 받은 승려 겐보(玄昉)가 낙성을 경하해서 법요(落慶法要)를 올린, 국가가 관리한 절(官寺)입니다. 5m 가 넘는 관세음보살상을 비롯하여 도읍이나 대륙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상이 차례로 세워졌습니다. 무악단도 배치하여 외국 사절단을 환영하는 향연을 베풀어 대접했습니다. 현재, 당시의 무악에 사용되던 탈이 간제온지에 남아있습니다. 또한, 당나라의 고승인 간진(鑑真)은 일본 도착 후, 간제온지에 머물며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한 계율(戒律)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주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간제온지의 계율을 주는 계단은 천하삼계단(天下三戒壇) 중 하나로 여겨져, 많은 승려를 배출하였습니다. 수계를 받는 계단 자체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카이(空海) 등 당나라에 다녀온 승려가 장기 체류하면서 당나라에서 가져온 경론을 베껴 쓰는 일 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간제온지에 있는 구보 범종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가 한시「불출문(不出門)」에서「간제온지의 종소리를 그저 듣고만 있다」고 읊은 바로 그 종입니다.

이와 같이, 츠쿠시에 있던 다자이후는 조정이 외교 · 교역을 하기 위해 마련한 서쪽의 도읍인「니시노미야코」였습니다. 그것은 백제 도성과 당나라의 도성를 모방하여 세워진, 동아시아의 선진 문화와 일본 문화가 오가는 장소였습니다. 그 유산은 츠쿠시 땅의 곳곳에서 발견되며, 일본을 대표하는 고도(古都)의 하나로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Chapter

01 「니시노미야코(서쪽의 도읍)」다자이후

중국 • 당나라의 도성을 따라 조영된 서쪽의 도읍인「 니시노미야코」 다자이후 . 8 세기에 탄생해 , 정치 · 군사 · 종교 · 교육 등에 관련된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 해외나 국내 각지와도 연결되는 교류 도시였습니다 .

국가 지정 특별 사적
소재지 : 다자이후시

다자이후 유적

8 세기에 성립한 다자이후는 규슈 전체를 통치하고 , 외교나 대외 방비 등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관청 터는 다자이후의 중핵 시설이 있던 장소로서 , 대략 2km 사방의 시가지 북쪽에 위치하고 , 헤이조궁과 같은 기와 건물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 외국 사절을 맞이하는 의례도 이루어져 , 국제 교류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

문양 전 (文様塼)

국가 지정 사적
소재지 : 다자이후시

다자이후 각코인(学校院) 터

다자이후에는「후 학교 (府学校)」라고 불린 관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 사이카이도 (규슈) 제국의 유력 호족 자녀들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 당시에는 유학 (儒学) 이 존중받고 있어 , 12 세기 초 , 다자이후 장관 대리였던 오에노 마사후사 (大江匡房) 는 견당사인 키비노 마키비 (吉備真備) 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공자의 초상화를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고고 자료)
소재지 : 다자이후시

군단 도장 출토지

[미카사단 도장・오카단 도장]

8 세기가 되면서 당시의 나라마다 군단이 설치되어 , 다자이후가 소재한 지쿠젠 국에는 4 개의 군단이 배치되었습니다 . 이 중 미가사단과 오카단의 동제 군단인이 다자이후 조방 북서부에서 발견되어 , 다자이후에 군단이 주둔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당나라를 따라 정비한 군사제도가 지방에 침투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시 지정 사적
소재지 : 지쿠시노시・다자이후시

다자이후 조방 유적

고대 다자이후는 조방제라고 불리고 , 동서의 길 (조로 : 条路) 과 남북의 길 (방로 : 坊路) 로 , 바둑판처럼 구획된 거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 8 세기 초 , 당나라의 왕도인 장안성을 모델로 헤이조쿄가 조영되었습니다만 , 헤이조쿄의 조영 책임자가 다자이후 조영에도 종사하여 , 동아시아 표준 도시인 다자이후가 성립되었습니다 .

소재지 : 지쿠시노시 · 가스가시 · 오노조시 · 다자이후시 · 사가현 기야마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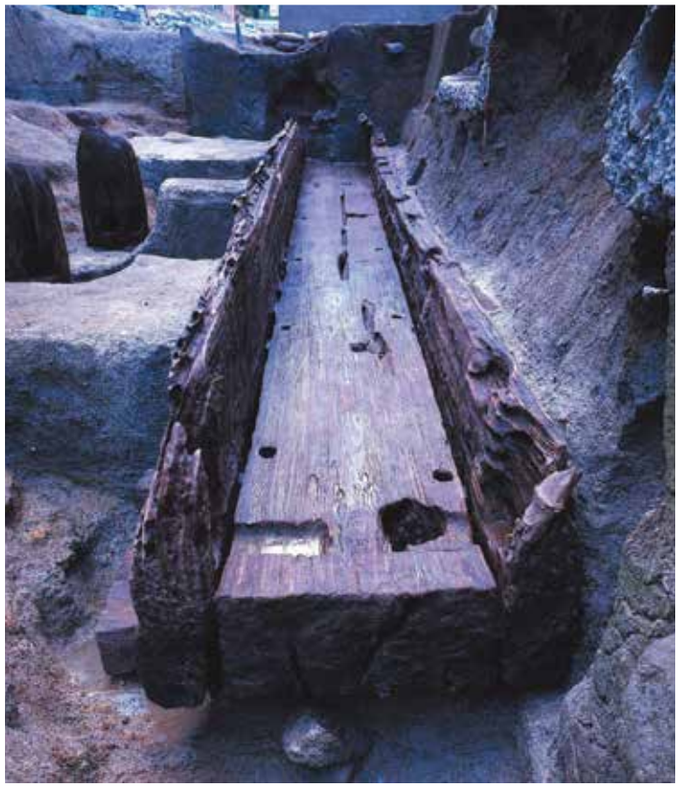
관도 유적

8 세기 , 국가에 의해 전국 도로망 (관도) 이 정비되어 , 다자이후는 사이카이도 (규슈) 여러 나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 특히 , 미즈키 (水城) 서문에서는 외국 사절단의 숙박 시설인 츠쿠시무로츠미 (고우로칸) 으로 , 한편 동문에서는 헤이조쿄 (나중 헤이안쿄) 로 연결되어 , 외래문화나 문물을 운반하는 등 , 다자이후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

Chapter

02 서쪽의 도읍인 「니시노미야코」와 수호

663 년의 백촌강 전투에서 패한 일본은 당과 신라의 진공에 대비해 한반도의 기술을 도입한 산성을 쌓고 , 방위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 서쪽의 도읍인 「니시노미야코」는 선대의 산성을 「수호」에 활용한 도시였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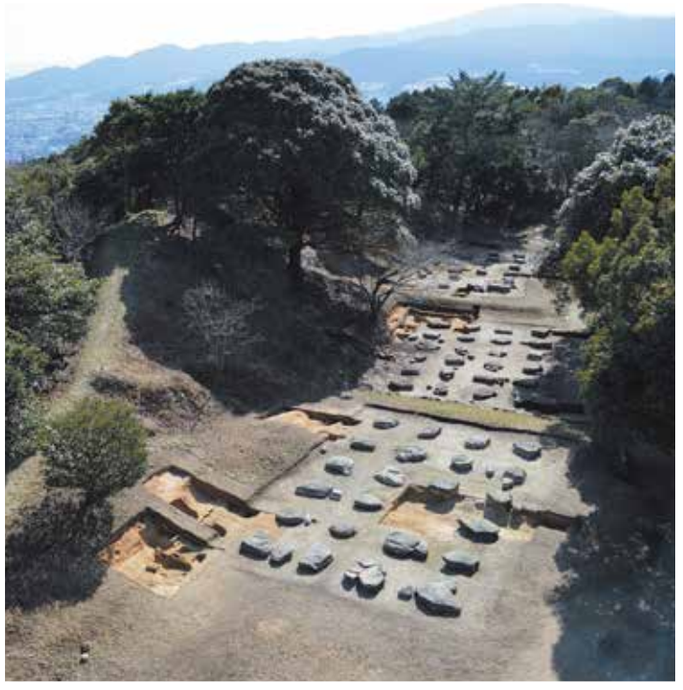


도수 시설 (목통 , 木樋)

국가 지정 특별 사적
소재지 : 가스가시 · 오노조시 · 다자이후시

미즈키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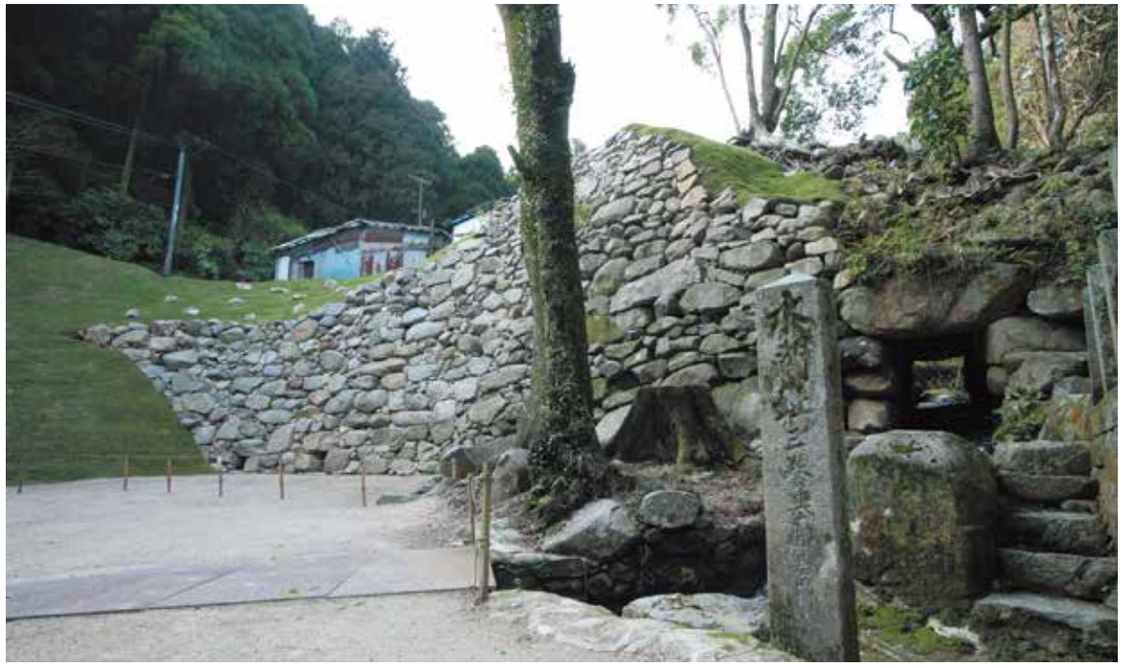
664 년 하카타만 쪽으로 오는 나당 연합군 공격에 대비해 한반도와 같은 축조기술로 만들어진 길이 1.2km 의 직선적인 토루로 평야를 차단한 산성입니다 . 저수지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미즈키 (水城)」 라고 불렸습니다 . 동서쪽의 문은 8 세기에 다자이후의 출입구가 되어 외국 사절단이나 도읍에서 오는 관인들을 맞이했습니다 .



국가 지정 특별 사적
소재지 : 오노조시 · 다자이후시 · 우미마치

오노성 유적

665 년 당시 우호 관계에 있던 한반도 백제에서 망명해 온 귀족의 지도로 만들어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산성 , 산능성을 따라 토루를 둘러싸고 계곡과 성문 가까이에 보루를 쌓아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 백제의 수도 · 부여를 지키는 산성을 따라 만들었으며 , 입지나 축성 기술에서 당시 교류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습니다 .



국가 지정 특별 사적
소재지 : 지쿠시노시 · 사가현 기야마초

기이성 유적

665 년 , 일찍이 우호관계에 있던 한반도 백제에서 망명해 온 귀족의 지도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산성입니다 . 8 세기에 서쪽의 도읍인 「니시노미야코」 다자이후가 성립되면서 남쪽의 요충지로서도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 『만엽집』에는 다자이후의 장관이며 가인으로서도 저명한 오토모노 다비토 (大伴旅人) 가 기이성에 올라가 읊은 시가 있어 , 교류의 장소로도 되었습니다 .

국가 지정 사적
소재지 : 지쿠시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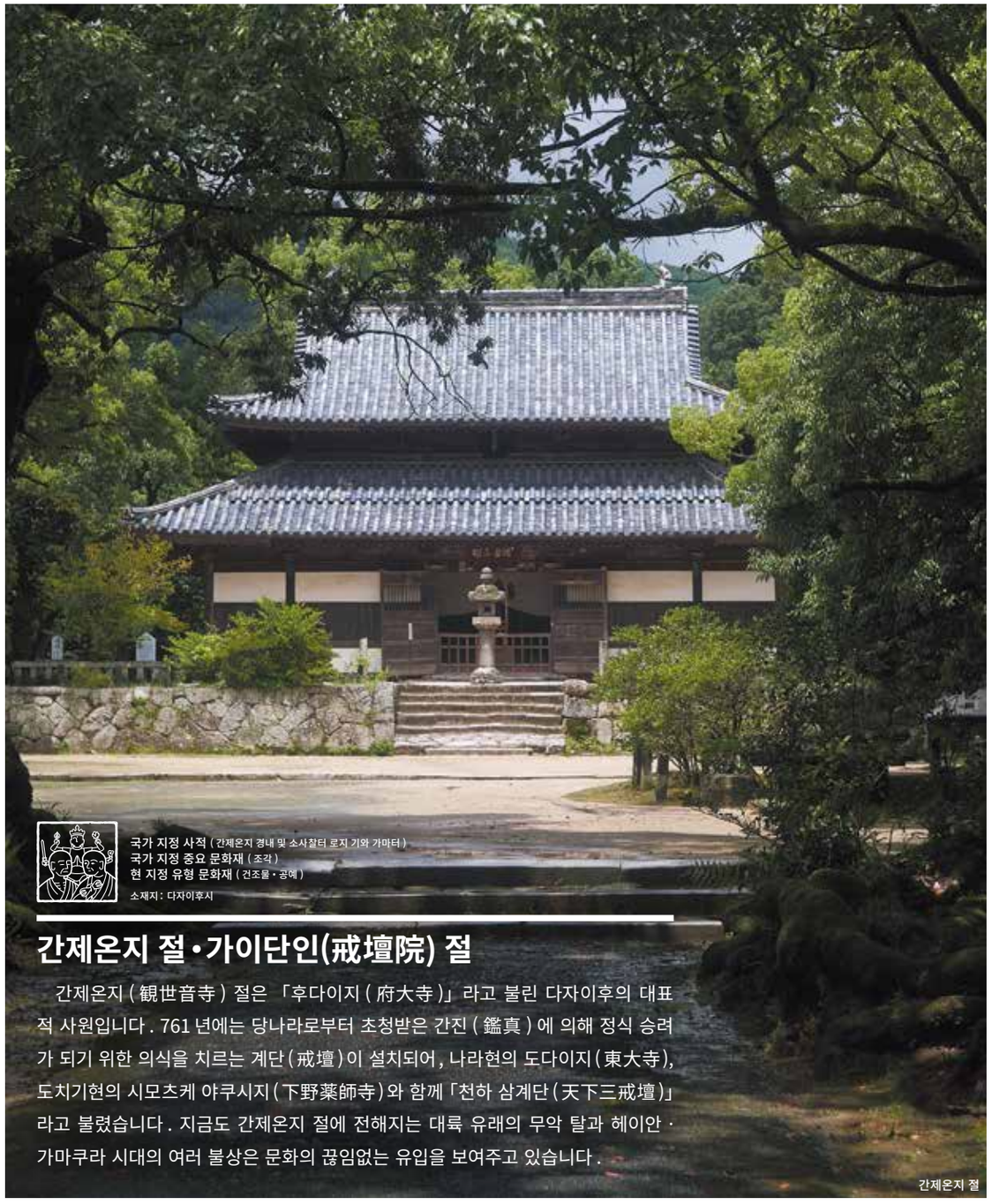
아시키산성 유적

다자이후의 남동쪽에 있는 산성으로 , 오노성과 기이성 등과 같이 고대에 쌓았다고 생각됩니다 . 흙을 층상으로 다지면서 쌓아 올린 토루나 , 단단한 석재를 정교하게 가공하여 짜 맞춘 석루 등 , 대단한 고도의 조영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고대의 선진적인 기술 교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Chapter

03 「니시노미야코(서쪽의 도읍)」와 기원

서쪽의 도읍인 「니시노미야코」 거리나 교외에는 다수의 사원과 신사가 세워져 있고, 주위 산봉우리에도 신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불에 국가의 수호, 항해의 안전, 죽은 천황의 추도 등 여러 가지 기도를 올렸습니다.



국가 지정 사적 (간제온지 경내 및 소사찰터 로지 기와 가마터)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조각)
현 지정 유형 문화재 (건조물・공예)
소재지 : 다자이후시

간제온지 절・가이단인(戒壇院) 절

간제온지 (観世音寺) 절은 「후다이지 (府大寺)」라고 불린 다자이후의 대표적 사원입니다. 761 년에는 당나라로부터 초청받은 간진 (鑑真) 에 의해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한 의식을 치르는 계단 (戒壇) 이 설치되어, 나라현의 도다이지 (東大寺), 도치기현의 시모츠케 야쿠시지 (下野薬師寺) 와 함께 「천하 삼계단 (天下三戒壇)」라고 불렸습니다. 지금도 간제온지 절에 전해지는 대륙 유래의 무악 탈과 헤이안・가마쿠라 시대의 여러 불상은 문화의 끊임없는 유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제온지 절

관세음사의 불상

가이단인 (戒壇院) 절

국보 (공예품)
소재지 : 다자이후시

범종

간제온지 (観世音寺) 절에는 698 년에 제조되었다고 추정되는 교토 묘신지 (妙心寺) 의 범종보다 오래된 국내 최고의 범종이 있습니다 . 10 세기 초 , 다자이후에 부임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菅原道真) 는 , 한시 「불출문」 안에서 이 종소리에 대해 읊었으며 , 지금도 고대와 같은 종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

오치아이 하루히코 (落合 晴彦) 촬영

국가 지정 사적
소재지 : 지쿠시노시

지쿠젠 고쿠분지 절터

8 세기 중반 , 쇼무천황 (聖武天皇) 은 불교로 국가를 지킨다는 진호 국가 사상을 바탕으로 , 전국에 고쿠분지 (国分寺) · 고쿠분니지 (国分尼寺) 절을 세워 칠중 탑에 경전을 올리도록 명했습니다 . 전국 고쿠분지의 정점이었던 것은 나라의 도다이지 절입니다 . 지쿠젠 고쿠분지 절은 다자이후가 관할한 사이카이도 (규슈) 중에서 최초로 완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국가 지정 사적
소재지 : 다자이후시

고쿠부 기와 가마터

8 세기 이후에 조업한 가마터에서 , 경사면을 파내고 벽과 천장을 햇볕에 말린 벽돌로 아치형으로 쌓아올려 만든 지하식 오름 가마가 발견되었습니다 . 당시 중국이나 한반도와도 공통되는 연꽃 문양의 수막새 와당 등이 생산되어 , 다자이후 정청이나 지쿠젠 고쿠분지 절 등에 공급되었습니다 . 현재 가마터는 저수지 안에 있어 볼 수 없습니다 .

시 지정 사적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건조물)
소재지 : 다자이후시

한냐지 절터

다자이후 조방 (大宰府条坊) 의 약간 동쪽에 있는 구릉 위에 세워진 사원 터로 , 8 세기가 되어 다른 장소에서 다자이후 조방 내로 이축했다고 합니다 . 탑기단과 탑심초가 발견되었으며 , 가마쿠라 시대에 조성된 석재 칠중 탑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 다자이후 관청과 같은 세련된 문양의 기와가 덮여져 있습니다 .

국가 지정 사적
소재지 : 지쿠시노시

도노하루 탑 유적

고대 사원 탑의 중심이 되는 탑심초가 남아 있습니다 . 윗면에는 불사리를 모시기 위한 사리공이 새겨져 있지만 , 방형인 2 단인 사리공은 규슈에서는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 이 탑 터는 출토된 기와의 문양이나 심초의 구조 등을 볼 때 다자이후 조방 안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한냐지 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시 지정 사적
소재지 : 지쿠시노시

스기즈카 절터

스기즈카 절터는 고대 도시 • 다자이후의 남서쪽 모퉁이에 있으며 , 그 동쪽에는 하카타만으로부터 미즈키 서문을 경유해 다자이후로 향하는 관도 (官道) 가 있었습니다 . 이 사원은 외국 사절들이 다자이후 근교에서 처음으로 본 장려한 건물로 다자이후의 도시가 정비된 시기와 같은 8 세기 초에 건립된 것 같습니다 .

국보 (서적)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건조물)
소재지 : 다자이후시

다자이후 텐만구 신사

10 세기 초 , 다자이후에 부임하고 다자이후 토지에서 생애를 마친 귀족 ,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菅原道真) 를 모시는 사당이 시작입니다 . 전국 텐만구 신사의 본사로써 , 문예에 뛰어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숭배해 많은 귀족과 무사가 참배하였으며 , 현재에도 학문의 신으로서 모시고 있습니다 . 당나라 시대 서적인『한원 (翰苑)』사본 등도 남아 있습니다 .

곡수연 (曲水宴)

칠석연 (七夕宴)

소재지 : 다자이후시

다자이후 텐만구 전통 행사

10 세기 무렵부터 , 다자이후에 부임한 상급 관리에 의해 , 궁정에서 열리는 행사를 다자이후에서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4 개의 연회가 열린 것으로부터 「시도노엔 (四度宴)」이라고 불리며 , 현재는 대륙에 기원을 둔 「곡수연 (曲水宴)」·「칠석연 (七夕宴)」·「 잔국연 (残菊宴)」 이 전해져오며 , 연회에서는 노래나 한시를 읊조립니다 .

현 지정 무형 민속 문화재

소재지 : 다자이후시

다자이후 텐만구 신행식 행사

다자이후에서 생을 마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菅原道真) 를 애도하기 위해 , 1101 년 다자이후 장관 대리였던 오에노 마사후사 (大江匡房) 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 매년 9 월 , 미치자네를 모시는 다자이후 텐만구 신사에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의 거택이 있던 남관 터까지 , 신을 모시는 가마를 중심으로 고대 의상에 몸을 감싼 400 ～ 700 명의 행렬의 오가는 모습은 , 현대로 이어지는 헤이안 두루마리 그림 같습니다 .

소재지 : 다자이후시

남칸(南館) 유적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菅原道真) 가 901 년에 다자이후로 좌천되고 나서 , 903 년 생을 마칠 때까지 살았던 관사의 터로 , 후 (府) 의 남관이라 불리며 , 동쪽은 주작대로에 면하고 있었습니다 . 1023 년에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죠묘인 (浄妙院) 사원이 건립되고 , 경내에 있던 큰 팽나무에서 이름을 따 「에노키 절 (榎寺)」」로 불렸으며 , 현재의 「에노키 신사 (榎社)」에 이르게 됩니다 .

산 정상에서의 풍경

소재지 : 지쿠시노시

덴파이산

옛 다자이후 남쪽에 있는 산으로 , 정상에서는 서쪽의 도읍인 「니시노미야코」 다자이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고대 도시에서는 남쪽이 정면으로 여겨진 것으로 보아 덴파이산은 다자이후 근교의 중요한 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이 산에는 901 년에 다자이후로 좌천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菅原道真) 가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서 하늘에 빌었다고 하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

국가 지정 사적
소재지 : 지쿠시노시 · 다자이후시

호만 산

옛날에는 미카사야마 산 , 가마도야마 산이라고 불리고 , 논밭을 윤택하게 하는 수원의 농경신으로 믿었으며 , 8 세기에 다자이후가 성립되면서 귀문 방향에 제사를 지내 재난을 쫓아내는 역할도 했습니다 . 또 , 다양한 국가적인 국경 제사가 올려져 , 견수사나 견당사로써 대륙으로 가는 사람들은 도항 전에 이 산을 겸허한 마음으로 올라가 항해의 안전 등을 기원했습니다 .

Chapter

04 「니시노미야코(서쪽의 도읍)」와 노래

서쪽의 도읍인「니시노미야코」에서 활약한 관리나 승려 . 가인으로서의 소질도 뛰어나 , 만남과 이별 , 망향 등 다양한 심정을 시로 읊었습니다 .「니시노미야코」에는 시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

야마무라 노부아키 (山村 延燁) 제작

소재지 : 오노조시 · 지쿠시노시 · 다자이후시 · 우미마치 · 사가현 기야마초

만엽집 츠쿠시 가단

720~750 년경에 다자이후에 체재하고 많은 일본의 시를 남긴 가인들은 지쿠시가단이라 불리고 , 가장 오래된 와카집인「만엽집」에도 등장합니다 . 그 중에서도 다자이후 장관이었던 오토모노 다비토 (大伴旅人) 저택에서 열린「매화연 (梅花宴)」은 당나라에서 가져온「매화」를 감탄하면서 시를 읊는 , 대륙 유래의 시와 관매 문화를 도입한 것입니다 .

소재지 : 다자이후시

다자이후의 매화

「매화」는 당나라에서 건너온 식물이며 , 관매도 중국 문화의 하나였습니다 . 8 세기 가집『만엽집』에 실린 다자이후의 장관인 오토모노 다비토 (大伴旅人) 저택에서 열린 매화연 (梅花宴) 은 , 레이와 (令和) 의 원호 유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어느덧 관매는 귀족 문화에서 서민 문화로 퍼져 , 다자이후에서는 매화를 사랑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와 비매 (飛梅) 전설도 전해 내려오고 있었으며 , 널리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

소재지 : 지쿠시노시

스이타노유
(후츠카이치 온천)

「만엽집」에는 8 세기 전반에 다자이후의 장관인 오토모노 다비토 (大伴旅人) 가「스이타노유」온천을 방문해 아내를 잃은 슬픔을「유노하라」에서 우는 학에 비유해 읊은 노래가 남아있습니다 . 1180 년경의 가요집『양진비초 (梁塵秘抄)』에는 다자이후 고관 , 간제온지 절 승려 , 안라쿠지 절 승려 , 시온지 절 승려 , 다자이후 무사 등의 순으로 입욕했다고 하여 ,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

시 지정 유형 민속 문화재
시 지정 천연기념물
소재지 : 오노조시

미카사노모리 숲

8 세기 와카집인『만요집』에는 다자이후의 고위관료였던 오토모노 모모요 (大伴百代) 가 읊은「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했다면 오오노의 미카사 신이 천벌을 받으실 겁니다 .」라는 시가 등장합니다 . 바로 서쪽에는 다자이후에서 미즈키 동문을 빠져나와 도읍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 , 왕래하는 관리나 상인들도 이 숲을 바라본 것일까요 ?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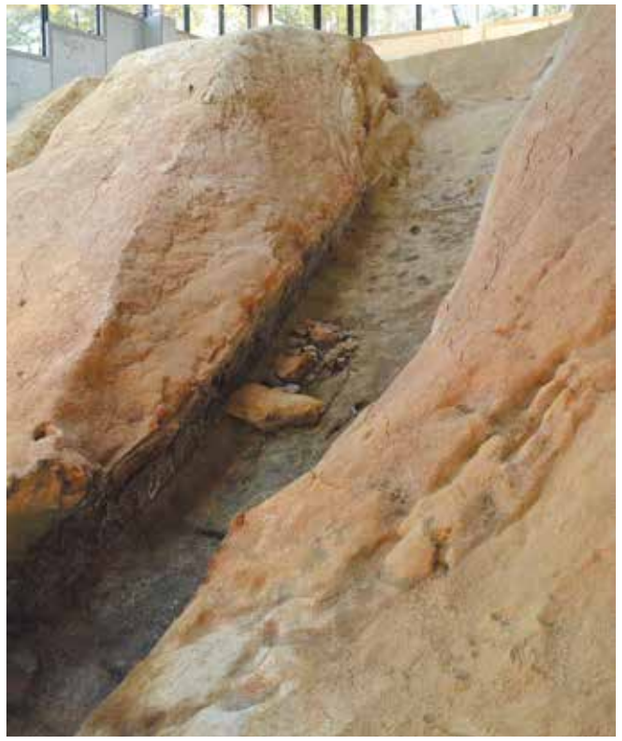
05 「니시노미야코(서쪽의 도읍)」와 기술

산성을 축성하고 도시와 수로를 정비하는 토목 기술 . 기와와 식기 등을 생산하는 요업 기술 . 관청이나 사원 등 건축물을 세우는 건축 기술 . 서쪽의 도읍인 「니시노미야코」 는 다양한 「기술」 로 인해 뒷받침 받고 있었습니다 .

국가 지정 사적
현 지정 사적
소재지 : 가스가시 · 오노조시 · 다자이후시

우시쿠비 스에키 가마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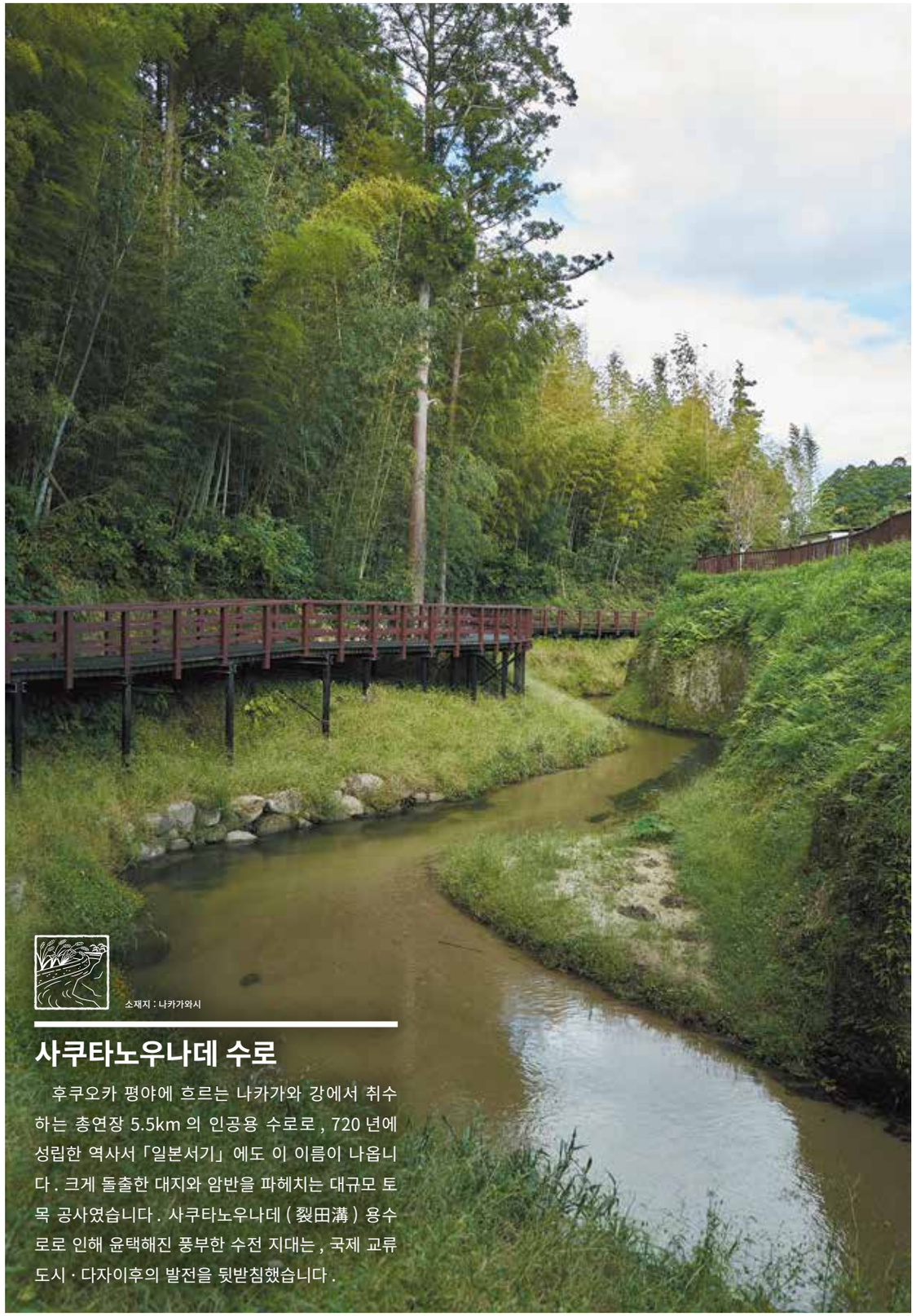
6 세기 중반부터 9 세기 중반에 걸쳐 조업한 서일본 최대 스에키 (須恵器) 토기 생산지입니다 . 7 세기에는 한반도와 긴키 지방에 연고가 있는 문양 기와도 생산되어 , 다양한 기술 교류의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 8 세기 이후는 서쪽의 도읍인 「니시노미야코」 다자이후의 식기도 생산해 , 관리에서 일반 서민까지 널리 당시의 식문화를 뒷받침했습니다 .



현 지정 유형 문화재 (미공)
소재지 : 오노조시

우시쿠비 스에키 가마 유적에서 출토한 명문 스에키 토기

10 세기 전반의 법률서 『엔기시키 (延喜式)』 에는 지쿠젠 국이 바치고 있는 세금 품목에 큰 옹기 · 작은 옹기가 있었습니다 . 다자이후에도 식기를 공급하던 우시쿠비 스에키 (牛頸須恵器) 가마터에서 「와도 (和銅) 6 년」 (713 년) 과 당시 세금의 하나인 「조 (調)」 등의 문자가 새겨진 옹기가 출토되어 , 당나라와 같은 정돈된 법 제도가 지방에 침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소재지 : 나카가와시

사쿠타노우나데 수로

후쿠오카 평야에 흐르는 나카가와 강에서 취수하는 총연장 5.5km 의 인공용 수로로 , 720 년에 성립한 역사서 「일본서기」 에도 이 이름이 나옵니다 . 크게 돌출한 대지와 암반을 파헤치는 대규모 토목 공사였습니다 . 사쿠타노우나데 (裂田溝) 용수로로 인해 윤택해진 풍부한 수전 지대는 , 국제 교류 도시 · 다자이후의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

Chapter

06 「니시노미야코(서쪽의 도읍)」전대의 교류

대륙과 한반도에 가까운 지쿠시 지역은 일찍부터 선진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과 문화가 유입되어 ,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 서쪽의 도읍인 「니시노미야코」 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성립되었습니다 .

현 지정 사적
소재지 : 오노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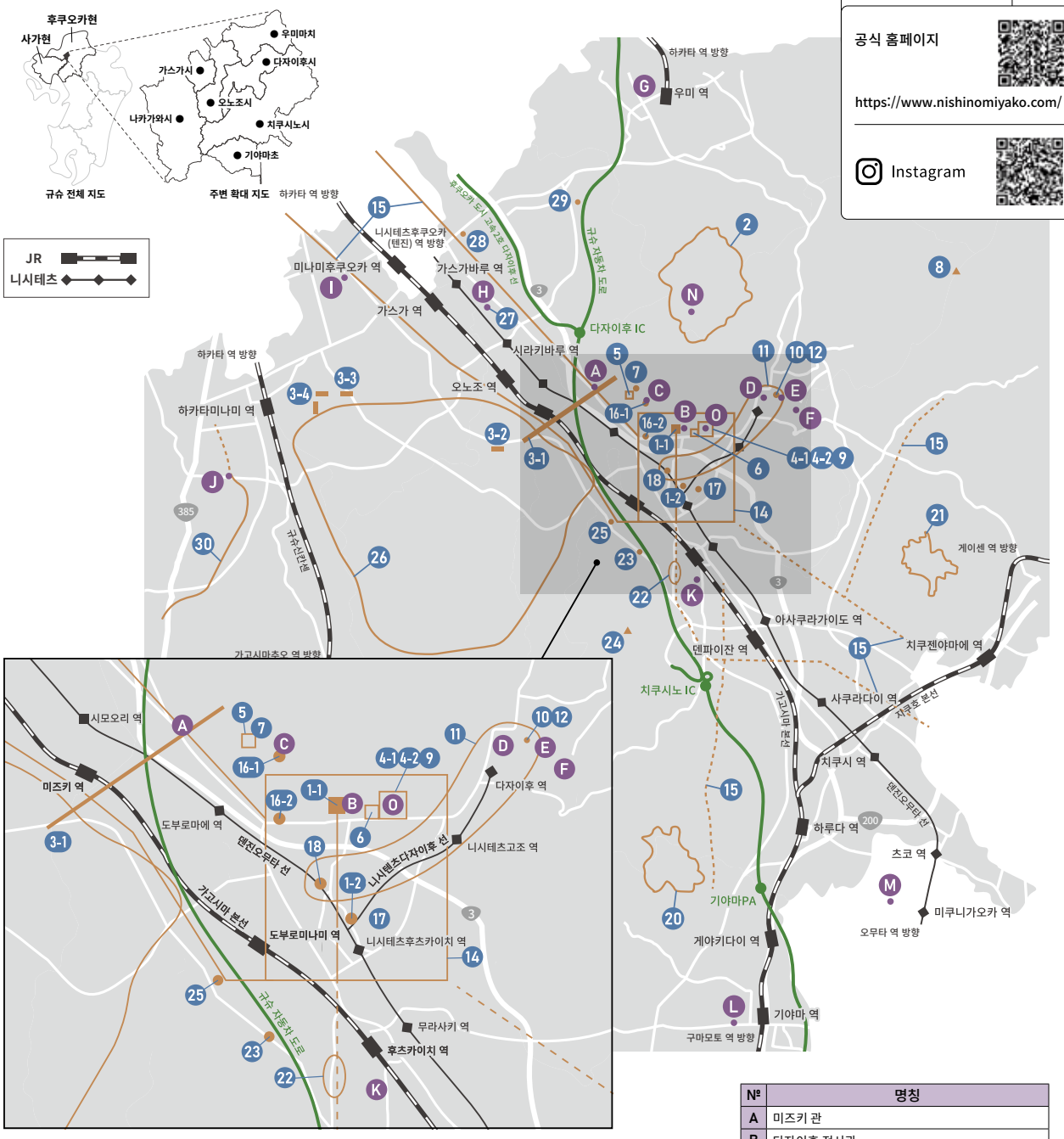
젠이치다 고분군

6 세기 후반부터 7 세기 후반에 걸쳐 조묘가 행해진 고분군으로 , 말 장식인 마구나 장식 대도 외 , 「나 (奈)」 의 글자가 새겨진 스에키 토기나 한반도 신라에서 가져온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 특히 신라 토기는 주변 고분군에서도 한꺼번에 출토되어 , 이 지역이 일찍이부터 국제 교류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신라토기

№	명칭	주소
1-1	다자이후 유적 (정청 터)	다자이후시 간제온지 4초메
1-2	다자이후 유적 (객관 터)	다자이후시 스자쿠 3초메 13
2	오노성 유적	가스야군 우미마치 시오지 207
3-1	미즈키 유적	다자이후시 미즈키 1초메 외
3-2	미즈키 유적 (가미오리 소미즈키 유적)	오노조시 아사히가오카 1초메
3-3	미즈키 유적 (오도이 소미즈키 유적)	가스가시 노보리마치 8초메 12
3-4	미즈키 유적 (덴진야마 소미즈키 유적)	가스가시 텐진야마 1초메 128
4-1	간제온지 절	다자이후시 간제온지 5초메 6-1
4-2	가이단인(戒壇院) 절	다자이후시 간제온지 5초메 7-10
5	지쿠젠 고쿠분지 절터	다자이후시 고쿠부 4초메
6	다자이후 각코인(学校院) 터	다자이후시 간제온지 4초메
7	고쿠부 기와 가마터	다자이후시 고쿠부 4초메 17-21
8	호만 산	다자이후시 우치야마 883
9	범종	다자이후시 간제온지 5초메 6-1
10	다자이후 텐만구 신사	다자이후시 사이후 4초메 7-1
11	다자이후 텐만구 신행식 행사	다자이후시 사이후 4초메 7-1
12	다자이후 텐만구 전통 행사	다자이후시 사이후 4초메 7-1
13	만엽집 츠쿠시 가단	다자이후시 간제온지 4초메6-1 다자이후 전시관
16-1	군단 도장 출토지[미카사단 도장]	다자이후시 사카모토 3초메
16-2	군단 도장 출토지[오카단 도장]	다자이후시 간제온지 3초메13-1 다자이후시립 미즈키 초등학교내
17	한냐지 절터	다자이후시 스자쿠 2초메 18
18	남칸(南館) 유적	다자이후시 스자쿠 6초메 18-1
19	다자이후의 매화	다자이후시 사이후 4초메 7-1 다자이후 텐만군
20	기이성 유적	사가현 미야키군 기야마초 고쿠라 외
21	아시키산성 유적	지쿠시노시 아시키
22	스이타노유 (후츠카이치 온천)	지쿠시노시 유마치
23	도노하루 탑 유적	지쿠시노시 토노하루히가시 3초메 14
24	덴파이산	지쿠시노시 무사시
25	스기즈카 절터	지쿠시노시 스기즈카 2초메 5-18
26	우시쿠비 스에키 가마 유적	오노조시 가미오리 5초메 (우메가시라 가마터)
27	우시쿠비 스에키 가마 유적에서 출토한 명문 스에키 토기	오노조시 아케보노마치 3초메 8-3 오노조 코코로노후루사토칸 뮤지엄
28	미카사노모리 숲	오노조시 야마다 2초메 4
29	젠이치다 고분군	오노조시 오코가나히가시 1초메 9
30	사쿠타노우나데 수로	나카가와시 안토쿠 ・야마다

№	명칭	주소	TEL
A	미즈키 관	다자이후시 고코부 2초메 17-10	092-555-8455
B	다자이후 전시관	다자이후시 간제온지 4초메 6-1	092-922-7811
C	다자이후 분카 후레아이 (문화 교류)관	다자이후시 고쿠부 4초메 9-1	092-928-0800
D	다자이후관	다자이후시 사이후 3초메 2-3	092-918-8700
E	다자이후 텐만구 보물전	다자이후시 사이후 4초메 7-1	092-922-8225
F	규슈 국립 박물관	다자이후시 이시자카 4초메 7-2	050-5542-8600
G	우미 역사 민속 자료관	가스야군 우미마치 우미 1초메 1-22	092-932-0011
H	오노조 코코로노후루사토칸 박물관	오노조시 아케보노마치 3초메 8-3	092-558-5000
I	가스가시 나코쿠노오카 역사 자료관	가스가시 오카모토 3초메 57	092-501-1144
J	미리카로덴 나카가와	나카가와시 추 2초메 5-1	092-954-2211
K	지쿠시노시 역사 박물관	지쿠시노시 후츠카이치미나미 1초메 9-1	092-922-1911
L	기야마초립 도서관 향토사 코너	사가현 미야키군 기야마초 미야우라60-1	0942-92-0289
M	규슈 역사 자료관	오고오리시 미츠사와 5208-3	0942-75-9575
N	후쿠오카현립 시오지 현민의 숲	가스야군 우미마치 시오지자카 207	092-932-7373
O	간제온지(観世音寺) 보물고	다자이후시 간제온지 5초메 6-1	092-922-1811



№	명칭	№	명칭	№	명칭
1-1	다자이후 유적 (정청 터)	8	호만 산	21	아시키산성 유적
1-2	다자이후 유적 (객관 터)	9	범종	22	스이타노유 (후츠카이치 온천)
2	오노성 유적	10	다자이후 텐만구 신사	23	도노하루 탑 유적
3-1	미즈키 유적	11	다자이후 텐만구 신행식 행사	24	덴파이산
3-2	미즈키 유적 (가미오리 소미즈키 유적)	12	다자이후 텐만구 전통 행사	25	스기즈카 절터
3-3	미즈키 유적 (오도이 소미즈키 유적)	13	만엽집 초쿠시 가단	26	우시쿠비 스에키 가마 유적
3-4	미즈키 유적 (덴진야마 소미즈키 유적)	16-1	군단 도장 출토지[미카사단 도장]	27	우시쿠비 스에키 가마 유적에서 출토한 명문 스에키 토기
4-1	간제온지 절	16-2	군단 도장 출토지[오카단 도장]		
4-2	가이단인(戒壇院) 절	17	한냐지 절터	28	미카사노모리 숲
5	지쿠젠 고쿠분지 절터	18	남칸(南館) 유적	29	젠이치다 고분군
6	다자이후 각코인(学校院) 터	19	다자이후의 매화	30	사쿠타노우나데 수로
7	고쿠부 기와 가마터	20	기이성 유적		

№	명칭
A	미즈키 관
B	다자이후 전시관
C	다자이후 분카 후레아이 (문화 교류)관
D	다자이후관
E	다자이후 텐만구 보물전
F	규슈 국립 박물관
G	우미 역사 민속 자료관
H	오노조 코코로노후루사토칸 박물관
I	가스가시 나코쿠노오카 역사 자료관
J	미리카로덴 나카가와
K	지쿠시노시 역사 박물관
L	기야마초립 도서관 향토사 코너
M	규슈 역사 자료관
N	후쿠오카현립 시오지 현민의 숲
O	간제온지(観世音寺) 보물고

文化庁 このストーリーブックは令和3年度 文化財多言語解説整備事業（文化資源活用事業補助金）を活用して制作されたものです。

【問い合わせ先】
「西の都」日本遺産活性化協議会（事務局：福岡県教育庁教育総務部文化財保護課）
〒812-8575　福岡県福岡市博多区東公園7-7　e-mail：kbunkazai@pref.fukuoka.lg.jp